

전파력 강하고 대부분 돌파감염...“약하다는 생각은 금물”

함평 확진자 사례로 본 오미크론

델타보다 전파 속도 몇 배는 빨라
확진·의심자 20명 가벼운 증상
해열제 등 진통제 정도로 치료
3차 접종 서둘러 항체 형성 중요

코로나19 새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특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함평에서 나온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3명과 이들이 접촉한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 검사를 기다리는 17명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전남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다. 14일 현재 함평 사례를 통해 드러난 오미크론의 특성은 ▲전파 속도는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르며 ▲증세는 무증세 또는 기침 등 감기 수준을 보이고 ▲접종 완료자 절대다수가 접촉 후 돌파 감염했다는 점이다. 다만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부 사례로 드러난 특성을 일반화하기엔 이르다. 특히 위험성 부분은 더 많은 자료와 임상 경험이 축적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치명률 등 위험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일단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는 함평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함평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아파트·유학생·아파트 자가격리 중 조카 감염(전북 어린이집)→전북 어린이집 감염→서울 가족 모임(전북 어린이집 원생, 함평 어린이집 원생 등 가족)→함평 어린이집 집단 감염→보건소 등 군내 공공기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되는 n차 감염이다. 지역으로 오미크론이 유입된 계기는 지난 주말인 4, 5일 서울 가족모임, 모임을 통해 감염된

함평 어린이집 원생이 월요일인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6시간 머무는 동안 교사 2명, 원생 6명을 감염시켰다. 당시 서울 모임에 참석한 원생 외에 모친, 이모 등 2명을 통해서도 추가 전파가 이뤄지면서 함평 오미크론 확진 및 의심자는 20명으로 불어났다. 이들과 접촉해 자가격리한 이들도 343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델타보다 전파 속도가 몇 배는 빠른 것 같다"며 "주말 모임에서 감염된 이후 잠복기없이 곧바로 전파가 된 것"이라고 했다.

빠른 전파 속도와 달리 현재 감염된 이들의 증세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파악된다. 오미크론 확진자 3명, 의심자 17명 등 20명 중에서 무증상 환자는 6명이다. 8명은 기침,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6명도 발열·두통 등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이들 20명 모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국장은 "모두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격리돼 있으나 증세가 심각하지 않아 특별한 치료를 받는 이가 없다. 감기 환자가 복용하는 해열제와 진통제 정도만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미크론 역시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함평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 및 의심자 20명 중 11명이 접종을 마친 성인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 등이다. 강 국장은 "접종 완료 시기는 확진자 연령대가 대부분 40대 이하인 만큼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체 형성이 낮은 상태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노출될 경우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새벽 0시 기준,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5명 늘어 누적 119명이 됐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신규 확진자 5명 중 2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3명은 국내감염 사례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14일 오후 광주서구 유촌동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광주지역 선별치료소에서 보내온 수송용 배지에 담긴 검체들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외유입 2명은 각각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서 온 입국자다. 국내감염 3명은 모두 이란 발(發) 입국자를 기점으로 한 호남권 어린이집 사례와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감염자는 전 날까지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던 114명을 포함해 총 119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로 구분하면 해외유입 28명, 국내감염 91명이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에서 위중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된 사람은 총 148명(감염자 119명·의심자 29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관광객 7천만 회복 속도낸다

여수서 청정전남 관광 설명회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등 논의
순천시 관계기관 연석회의

전남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 전남 관광 제약을 위해 맞춤형 관광객 유치 및 전남도 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을 통해 관광객 7000만 시대 회복을 위해 14일 관광설명회와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날 여수 유담마리나호텔에서 전국 여행사, 호텔 등 관계자 가운데 백신접종을 마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전남 관광 설명회'를 열어 2022년 전남관광 마케팅 방향을 소개했다. 관광설명회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해 2023년까지 7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열렸다. 목포시 등 전남 11개 시군이 각각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여행업계 관계자와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한 각 지역의 관광관련츠와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특히 전남도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뽑은 '세계 최우수 관광광마' 퍼플싱 등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전국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여행업계의

에로사항뿐만 아니라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다양한 사업 소개와 함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정책 및 전남도의 미래 관광전략 등을 함께 공유했다. 설명회 참여 여행사 등 관계자들은 여수 인근 신규 관광자원을 평소 체험하는 시간도 갖고 전남관광 상품 개발을 구상하기도 했다. 이강철 전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남도와 관광업계가 상생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의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도 관광과와 산림휴양과, 전남관광재단, 전남관광협회, 순천시(관광과, 국가공원운영과)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방문의 해와 관련 해양·생태·문화·음식 오감만족 안심관광을 주제로, 체류형, 힐링형, 체험형, 이벤트사업을 소개하고, 1시간 1대표 상품 개발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관광객 맞이를 위해 숙박시설 등 환대기반 조성에 공감하고,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19로 관광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재명 "일상회복 잠시멈춤 필요...즉각 거리두기 강화해야"

백신국가책임제도 요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7000명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하루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까지 900명을 넘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 백신국가책임제'를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나섰지 않느냐는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후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또 "백신 접종을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라며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

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즉각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등이 14일 오전 코로나 19 관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지난 주말 3박4일 간의 대구·경북(TK) 일정 중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당 관계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오늘 오전 비공개 일정이 있었으나 취소했다"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사를 안 받아도 되지만 방역에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오늘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보령해저터널 대천해수욕장·대천항 ↔ 원산도

2022 보령해안 마드박람회 2022.7.16 ~ 8.15

낭만, 추억, 사랑이 가득한 보령에 가자



대천해수욕장 스케이트장
12월 24일 ~ 2022년 2월 17일 대천해수욕장 마드광장



천북 굴



간재미무침



물잠뱅이탕



조개구이